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38호 1판 (음력 8월 29일)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영산강 은빛 가을 속으로 선선한 가을날씨를 보인 28일 광주 서구 서창동 영산강 들녘에 은빛 억새가 고운 빛깔을 뽐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움츠러든 관가…구내식당 '북적'·고급식당 '썰렁'

**■ 김영란법 시행 첫 날 … 광주 상무지구 음식점 풍경**

## 중국집·도시락 배달 주문 밀리고 먹자골목은 밤에도 한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낮 광주시청을 비롯한 광주지역 주요 행정·금융기관 등이 밀집한 상무지구의 음식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저렴한 도시락 배달 전문점과 중국집 배달 주문이 크게 늘어나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날 전망이다.

이날 낮 12시10분께 상무지구 한 유명 일식집. 한창 붐벼야 할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했다. 15개 방 중 3개 방만 예약손님을 받았을 뿐이다. 이날 저녁 예약은 1팀에 그쳤다. 사장 A씨는 "평소에는 일주일 가량 예약이 밀릴 때도 있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오늘부터 예약률이 평소에 비해 70%이상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고급 일식집에 비해 6000원~1만원대 저렴한 가격대의 음식점이 밀집한 광주시청 인근 먹자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시청 공무원들로 북적거렸을 골목이 이날은 한산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다 전날 시청 일부 실·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 탓인지 외부로 식사를 하러 나온 공무원들은 극소수였다.

반면, 같은 시각 광주시청 구내식당은 북새통을 이뤘다. 구내식당 입구에서 복도까지 80여m의 긴 줄이 이어졌다. 밀려든 공무원에 평소 550인분을 마련했던 식당은 이날 120분 식사를 더 준비해야 했다.

이날 중국 음식과 도시락을 배달해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는 공무원들도 눈에 띄었다. 이 때문에 중국음식점의 경우 주문이 밀려 평소에 비해 20분 가량씩 배달이 늦어지기도 했다.

시청 직원인 이모(40)씨는 "중국음식점 배달이 늦어 전화를 걸어 재촉했더니 오늘따라 배달 주문이 평소에 비해 50%이상 늘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 사무관은 "첫날부터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직원들 사이에 괜한 오해를 받기 싫다는 점 때문에 가급적 점심도 간단하게 해결하고, 저녁 약속도 잡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부터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들은 앞으로 가져올 변화상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상무지구 W 일식당 주인 이모씨는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식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음식 가격을 3만원 이하로 낮추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예약 손님은 80%가량이 줄었다"면서 "비싼 임대료에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음식점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남 국감 오늘부터 시작

## 농어촌공사, 김재수 의혹 난타전 예고

## 30일 전남도… 다음달 10일까지 26곳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29일)부터 시작된다.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등으로 인해 '반쪽 국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감 기관들은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8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10일까지 광주·전남지역 2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9일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리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버티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재임시절 이뤄졌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각종 연루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남지사가 다소 수월한 국정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5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나주 한전에서 한전·한국전력거래소·한전 KPS·한전 KDN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6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광주고검·광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어 10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주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전도 관심이다. 과거와 달리 대부분이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커지는 秋鬪

## 민노총 광주본부 대규모 시위

## 파업집회 11월까지 이어질 듯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등) 도입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추계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7일 광주 송정역에서 철도·건강보험 노동조합원 1500여명이 운집해 출정식을 열고 정부 정책 철회시까지 장기적인 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한 데 이어 28일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주관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공공운수·보건의료·금속노조 등 조합원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비정규직 확산 노동정책 철회, 노동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3㎞가량 도심을 행진했다.

지역 노동계는 29일 공공운수노조 상경투쟁, 30일 지역별 총파업 연대투쟁, 10월 1일 안전사회 건설 범국민 대회, 10월 6일 전국 동시다발 파업 결의대회, 11월12일 민중 총궐기 투쟁 등 집회와 시위를 잇따라 개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토해낼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쉬운 해고·공공부문 민영화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짓밟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로 향하는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이날 현재 호남지방철도노조의 경우 조합원 43.2%가량이 파업에 동참했으나 여객 운송과 물류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가을축제 물결 ▶2·12면
'노을 관광 1번지' 영광군 ▶11면

그림편지-김영태 킬리만자로 ▶18면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 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